



2020년 사순절

주의 십자가가 사랑하리...

2월 26일(수) ~ 4월 11일(토)

가정예배 주간묵상집

- 셋째 주 -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2/26 재의 수요일	27 2일	28 3일	29 4일
3/1 사순절 1주	2 5일	3 6일	4 7일	5 8일	6 9일	7 10일
8 사순절 2주	9 11일차	10 12일차	11 13일차	12 14일차	13 15일차	14 16일차
15 사순절 3주	16 17일	17 18일	18 19일	19 20일	20 21일	21 22일
22 사순절 4주	23 23일	24 24일	25 25일	26 26일	27 27일	28 28일
29 사순절 5주	30 29일	31 30일	1/4 31일	2 32일	3 33일	4 34일
5 종려 주일	6 35일	7 36일	8 37일	9 38일	10 39일	11 40일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6~10)						
12 부활 주일	=> 총동원주일					

눅 7:47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
게 사랑하느니라

도성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알고 있고, 또 바리새파 사람 시몬은 그 누구보다도 그 여인의 죄상을 낱낱이 열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율법과 죄의 수량 그리고 개인적인 정당화라고 하는 것들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의 영역밖에 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존재가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천상천하(天上天下) 유아독존(唯我獨尊)

하지만 여인은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그녀는 스스로가 죄인이고 또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 분석이나 수량, 죄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흘리는 그녀의 눈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의 눈물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죄들, 수많은 죄를 예수님에게 넘겨버립니다. 사랑이란 친교요 다른 존재를 인정하는 욕구이기 때문에 분리의 모든 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오늘은 말이 아닌 눈물로 기도하며 나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 봅시다. 거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봅시다.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봅시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눅 19:10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얼른 나무에서 얼른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를 모셔 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삭개오는 많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것이 그를 기쁘게 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는 로마의 앞잡이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돈을 모으는 자에서 자기 돈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나무 위에 있다가 아래로 내려오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며,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다가 구세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많은 군중들과 삭개오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군중들은 삭개오를 비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삭개오에 의해 많은 피해를 보고 가난해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군중들도 역시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삭개오의 집으로 가는 예수님을 보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들은 오만과 고집에 휩싸여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이 구주라고 깨닫게 됩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볼 때 처음에 부자인 삭개오는 가난한 자로 변하고 반대로 군중은 처음에는 가난하였지만 부자가 됩니다. 군중은 예수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을 뿐이지만, 삭개오는 그의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먹고 자게 됩니다. 삭개오는 신바람나고 기쁨에 가득찬 인물이었지만 군중은 불평과 슬픔에 젖어 있는 무리들입니다.

오늘은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고 목상하며 우리들의 삶속에서도 삭개오가 누렸던 기쁨과 가난의 정신을 이루어봅시다.

막 8:34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부터는 <회개에서 사명으로>으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당신의 사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과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는 말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부르심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삶의 일치를 이루기 위하여 발견해야 할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에게로 가야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을 소명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소명이란 어떤 업적보다 인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자기 삶의 중심인 사랑을 발견하는 때입니다. 그리스도와와의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인격적인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한, 그분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고 해도 실패의 쓴 잔을 마실 수 있고, 또 인간적 성공으로 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 혹은 저것을 하고 싶다”고 말하기에 앞서 “그분 곧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막 12:33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 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두 방향으로 동시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는 수평적인 방향, 다른 하나는 수직적인 방향입니다.

수평적인 부르심은 사람으로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증진시켜야 할 이 인간적인 것이라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향상시킨다는 욕망 속에서 사람들은 거짓 신들, 우상들을 만들어 냅니다. 우리는 인간을 자기 욕망과 노예화하는 기술에 떠넘김으로써 비인간화합니다. 이때 인간은 자신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더 이상 모르게 됩니다.

인간은 자유와 상호인정 속에서 사랑의 힘에 자신을 개방할 때 오직 인간답게 됩니다. 사랑은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요,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는 것도 오직 그 사랑의 역동성을 통해서입니다. 인간이 자기 본연의 인간이 되는 것은 헌신, 봉사, 자기희생 등으로 표현되는 모든 사랑의 깊이를 발견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입니다.

수직적인 부르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것을 우리 각자 안에서도 실현할 것을 촉구하는 부르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높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 이 업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 일을 계속 실현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제자들을 모으셨고,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오늘은 이 두 부르심의 깊은 의미를 묵상합시다. 사랑이란 두 글자가 이 묵상을 도와줄 것입니다.

히 11:26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방식은 끝까지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종’(엡5:2)의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그분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의 모든 것을 거부하도록 촉구합니다. 나를 위하여는 아무것도 남겨 놓지 않으면서, 내 존재를 오로지 그리스도께 드리며 살기로 다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헌신함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혹은 내 주위의 사람들로 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비난이나 멸시를 받더라도 그분과 함께 있기 위하여 그분만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닥치든 언제나 만족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간에 나는 주님을 모셔 들입니다.”

그렇게 해 나갈 때 나는 그분과 함께 있는 그 깊은 곳에서 갑자기 온 우주가 나의 동반자임을 발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구름 처럼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이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서,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 목숨을 얻는다.”(마 16:25)

오늘은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 드릴만한 나의 모습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깊이 묵상합시다.

마 20:2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헌신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헌신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가끔씩 세배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처럼 말합니다.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 어머니는 자신과 아들이 예수님께 행한 것들, 업적들을 의식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상을 달라는 요구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머니의 부탁을 한 마디로 거절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부탁을 계기로 그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마시는 잔을 각자가 마실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종으로서 헌신한 예수님에게 요구되었던 잔이었습니다. 그 잔이 우리들 각자에게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너희들 가운데는 권위를 힘으로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된다.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 너희들 가운데서 누가 첫째요 누가 꼴찌인가를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는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사도들은 응답합니다. 과연 그들은 자기네가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분의 잔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네가 그분과 함께 그 잔을 마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은 이리저리한 봉사가 아니라, 그들 자신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봉헌하는 데 두려움을 갖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보다는 자신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개방시켜주는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주간묵상집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1. 가정예배

- ① 온 가족이 함께 찬양합니다. ②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
- ③ 묵상한 내용을 서로 나눔 ④ 묵상 글을 함께 읽습니다.
- ⑤ 묵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합심기도합니다.

2. 하가다

- ① 반드시 소리내어 합니다. ② 매일 반복합니다.
- ③ 집중해서 합니다. ④ 믿음으로 합니다.
- ⑤ 단순하게 합니다. (여러 구절보다는 한 구절을 3천 번 읊조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금주의 하가다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창 12:1)

3. 중보기도

- ① 회개: 모세가 백성들의 죄악을 품고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던 것처럼, 먼저 우리 자신과 나라의 죄악을 품고 회개 기도합니다.
- ② 교회의 평강과 영적 회복, 부흥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③ 확진자와 그 가족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온 나라가 지혜롭게 대처하여 코로나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하옵소서.
- ④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방역당국, 의료진, 모든 수고하는 손길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할 있도록 힘을 더해 주옵소서.
- 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이비가 무너지게 하시고, 거짓 복음에 메여있는 모든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 주옵소서.
- ⑥ 사순절을 보내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합니다.